

신생아에게 모유 대신 콜라 먹이는 여성들

낙태를 하지 못한 케냐 여성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 모유 대신 콜라를 먹여 살해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케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아 살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케냐 나이로비의 빈민가 카베라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빈센트 오드히암보는 텔레그래프에 “가정을 꾸릴 처지가 아닌 여성들이 신생아에게 콜라를 먹이고 있다. 모유 대신 콜라를 마신 아기는 3일 넘지 못하고 죽는다. 시신은 쓰레기장이나 강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다.” 라고 설명했다. 콜라 외에 진저비어(소량의 알코올을 함유한 생강맛 탄산음료)도 영아 살해에 자주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카베라에서는 지난 5월에도 불과 7일 동안 8명의 영아가 쓰레기로 뒤덮인 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이 같은 영아 살해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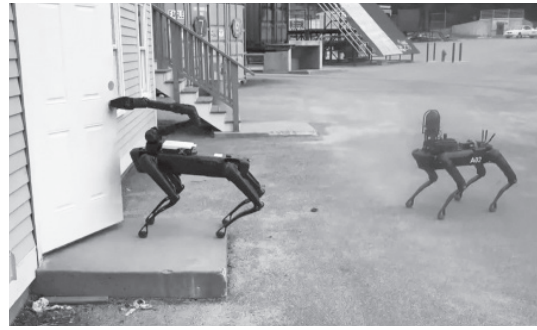
케냐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낙태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응급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문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케냐 여성들이다. UN에 따르면 케냐 임신부의 49%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 특히 하루 생활비 1달러 수준의 극빈층은 먹을 것이 없어 성매매에 나섰다 임신을 이른다. 극심한 가난 속에 가뭄과 홍수까지 겹치면서 농사를 망친 케냐인들이 쌀과 식량을 교환하는 일도 많다. 케냐에서는 10대 소녀 5명 중 1명이 임신했을 정도로 10대 임신률이 높다.

하지만 이들에게 낙태는 허락되지 않는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여성들은 알음알음 뒷골목의 돌팔이 의사를 찾는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임신부의 목숨도 위협한다. 피임 및 낙태 관련 비정부 기구 ‘마리 스톱스 인터내셔널’은 매일 7명의 케냐 여성이 불법 낙태수술로 사망하며, 연간 35만 명이 불법 시술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낙태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여성도 매년 12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낙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케냐 종교계는 도덕적 이유를 들어 낙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로봇개’ 경찰견 투입 논란

미국의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4족보행 로봇 ‘스팟’ (SPOT)을 매사추세츠주 경찰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WBUR에 따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매사추세츠 경찰의 계약서에는 스팟에 무기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로봇을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하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재 우리는 매사추세츠 경찰과 공공안전을 목표로 하는

협력 관계에 있다. 앞으로 5~10년 안에 우리는 스팟을 이용해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소포를 확인하며 비상 상황에서 위험한 가스를 감지하는 최초 대응자들을 보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시카고 공영라디오 WBUR은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이 입수한 새로운 문건을 인용해 이른바 ‘로봇개’ 로 불리는 스팟이 지난 8월 이후로 매사추세츠주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여러 사건에 투입됐지만, 아직 이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매사추세츠 경찰이 스팟을 위험물로 의심되는 포장물을 조사하거나 용의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는 사건 현장에 먼저 투입되도록 고안된 이동식 원격 감시 장치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팟은 현관문을 사람처럼 열 수 있는 로봇 팔과 저조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런 장치는 자체적으로 작동하거나 원격 조종기를 사용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컴퓨터 시각 처리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다.

이와 함께 “스팟과 같은 민첩한 로봇을 이런 상황에 투입하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으며 비상 대응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ACLU와 같은 시민단체는 이런 로봇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팟을 포함해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2족 보행 로봇 등 여러 로봇을 여러 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침입 강도 제압한 82세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강도를 물리친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려들어 금속 의족으로 위협을 한 뒤, 넘어진 그의 팔다리를 제압했다.

지난 24일 CNN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82세 할머니 윌리 머피(사진)는 지난 21일 밤 11시경 취침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을 부술 듯 뒤흔드는 소리를 들었다. 문밖에서는 한 남성이 “내가 지금 몸이 몹시 아파서 그러니 구급차를 불러달라.” 며 “간청” 하고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할머니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의 남성은 ‘정체’ 를 드러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할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문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집 안으로 침입한 남성은 흠쳐 갈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탁자 뒤에 몰래 숨어 이를 바라보다 ‘회심의 일격’ 을 가했다. 탁자를 통째로 집어 들어 무단침입자에게 집어 던졌고, 놀라서 어안이 병병한 무단침입자에게 달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강도를 물리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집주인인 할머니는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몸을 단련시킨 보디빌더였고, 무려 데드리프트 최고 기록이 102kg에 달하는 힘의 소유자였다.

할머니는 강도에게 탁자를 집어 던진 뒤 넘어진 그를 제압했고, 마침 주변에 있던 삼푸를 얼굴에 들이부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강도를 물리친 할머니는 “집에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은 (내가 강도를 때려눕혔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인증샷’ 을 찍자고 제안했다. 매일 가는 피트니스 클럽의 사람들은 나를 ‘영웅’ 으로 불렀다.” 며 “그(강도)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이라면서 강도를 물리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신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